

전남도, 찾아가는 버스 삼총사 도민 건강찾아 힘찬 출발

장성서 '전남행복버스·건강버스·마을안심버스' 첫 운행
사회서비스 취약지역 보건·복지·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전남도는 사회서비스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복지·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6년 찾아가는 전남 버스삼총사' 출발식을 5일 장성 하오마을회관에서 개최,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

이번 출발식은 전남행복버스, 전남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출발하는 행사로,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오지마을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통합 서비스 제공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혈압·혈당 검사, 치과·한방 치료 등 보건 서비스와 함께 키오스크 교육, 이·미용, 보행보조기 살균 세척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됐다. 또한, 우울·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

하고, 심리 상담과 정서 지원을 제공해 도민의 미망 건강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현장에서 한방치료를 받은 한 80대 어르신은 "무릎과 허리가 늘 아파도 참고 지냈는데, 마을로 직접 와서 침도 놔주고 설명도 해줘 정말 고맙다"며 "병원 가기 힘들었는데 집 근처에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교육에 참여한 또 다른 어르신은 "병원이나 은행에 갈 때 기계 앞에 만서면 겁부터 났는데, 알기 쉽게 자세히 알려줘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같은 노인들도 뒤쳐지지 않게 행여나고 고맙다"고 말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각각 도민 곁을 찾아갔던 전남행복버스,

전남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가 처음으로



전남도는 사회서비스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복지·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6년 찾아가는 전남 버스삼총사' 출발식을 5일 장성 하오마을회관에서 개최,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

한자리에 모여 함께하게 된 뜻깊은 날"이라며 "모든 마을에 행복과 건강이 전해질 때까지 쉼 없이 달리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남행복버스는 주 4회 270개 마을을 방문해 7000여명의 도민에게 28종

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서비스로 △집으로 찾아가는 기초 검사(혈압측정 등 3종) △건강교육 △인생네트 등이 추가됐다.

전남건강버스는 2대가 운영 중이며, 각

차량이 주 3회씩 연간 220개 마을을 찾아 100여 개 지역을 방문해 2000여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과 심리지원, 맞춤형 상담 등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음안심버스는 주 1회 운영으로 연간 이현규 기자 gnews01@gwangnam.co.kr

동신대 한의학과, 한의사 국시 전국 수석 배출

졸업예정자 전원 합격…재학생 100% 합격 성과



3개 부속 한방병원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협력병원 동신한방병원을 활용해 임상 중심 교육을 실시하며,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한의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 한의과대학 교수진을 중심으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선도연구센터(MRC), 지역 미래 과학 기술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한의학의 과학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수진 전원이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사이언스올림 프로그램 등 다양한 비교과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국가시험을 대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신대 한의학과는 광주·나주·목포 등

평가를 받았다.

전국 수석 합격자인 김수현씨는 "기초부터 단단히 가르쳐주신 교수님들과 동기들의 응원 덕분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며 "수석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6년간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뿐 듯하다. 매 순간 환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정직한 한의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현우 동신대 한의과대학장은 "광주·전남 지역 유일의 한의과대학으로서 의미 있는 교육 성과를 거두게 돼 기쁘다"

며 "앞으로도 마음까지 치하하는 따뜻한 한의사를 양성하고,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해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합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남도새마을회는 최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임원 및 22개 시·군 회원단체장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남도새마을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개최

전남도새마을회는 최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임원 및 22개 시·군 회원단체장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남도새마을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사업 실적 보고와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